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전환을 위한 선언

OA 참여학회

2019년 8월 29일 한국어문학 전공 및 문헌정보학 전공 30여 개 학회 및 학술단체는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를 선언하면서, 지식 생산 및 활용의 공공적 가치 증진, 학문과 지식 생산의 공공성·합리성이라는 지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7월 17일 지식공유연대를 정식으로 창립하면서, 인문·사회과학 학술지는 새롭게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전환을 선언합니다.

인문·사회과학 전공 학회(기관)은 민간 학술정보 업체가 중심이 된 현행 학술지식 유통의 구조 아래, 학회가 학술 지식의 유통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무비판적으로 동의했음을 반성합니다. 그 결과 논문의 집필자인 연구자 자신이 논문 유통과정에서 소외되었고, 학회는 민간 학술정보 업체가 학술지의 논문을 신뢰할 수 없는 경로로 판매하는 상황에 개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와 학문후속세대는 논문의 이용에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우리 인문·사회과학 전공 학회(기관)은 왜곡된 현행 학술 유통의 구조와 현상을 성찰하면서, 오픈 액세스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학술 공공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우리 학회(기관)은 연구자로서의 학술적 주권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식공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속 연구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연구자가 생산한 학술 지식을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2) 우리 학회(기관)은 학술지 오픈 액세스를 통해 학술 지식이 정확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학술 지식의 사회적 기여를 증진하기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둘째, 올바른 학술문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우리 학회(기관)은 자기 착취와 후속세대의 그림자 노동에 근거한 학회의 관습적 운영을 반성하고, 협동에 근거한 공동의 학술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경쟁과 성과 중심의 기존 학술 문화에 반대하며 새로운 학술 제도와 연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 학회(기관)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이 학술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정책의 마련과 집

행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상반기 학술지 『한국여성문학연구』, 『대중서사연구』, 『상허학보』,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Korea Journal* 은 기존 민간 학술정보 업체와의 배타적 독점계약을 종료하고 오픈 액세스 학술지로 첫 걸음을 옮겼습니다. 또한 많은 학회에서 기존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학회 사정에 따라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과학 전공 학회(기관)은 오늘의 선언을 이행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지식공유 연대를 중심으로 여러 전공의 학회 및 학술단체와 기관, 독립연구자들과 함께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2020. 7. 17.

구보학회, 국어국문학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INAKOS), 근역한문학회, 대중서사학회,
만주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상허학회, 한국고소설학회, 한국고전문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문학치료학회, 한국시가학회, 한국시학회,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한문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지간행실